

전남 동부권

섬진강변에 '복합 리조트'

EK월드 전역 민자방식... 호텔·병원 등 내년 1월 착공

광양시 다압면 섬진강변에 복합 관광휴양시설이 조성된다. 19일 전남도에 따르면 광양시 다압면 신원리 일대 21만5000여㎡에 350실 규모의 호텔과 콘도, 120실 규모의 유스호스텔, 50병상의 종합 의료시설 등 복합 관광휴양시설인 가장 '섬진강 리조트'가 들어설 계획이다. 가장 '섬진강 리조트'는 경기 부천시 소재의 ㈜EK월드가 전역 민자방식으로 조성한다.

사업비(1682억원)는 분양과 임대 등으로 절반가량인 800억원을 확보하고, 나머지는 기업투자 280억원·자부담 200억원·금융기관 차입 402억원 등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하지만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금융권 차입 등이 갈수록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원활한 분양과 임대 등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지는 귀추가 주목된다. 도는 고용창출 175명과 10년 후 매

출액 1700억원을 예상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현재 투자자가 사업면적의 96%가량의 토지를 사들였으며, 이달 말 지구단위 계획수립(자연 휴양림)이 마무리되면 투자협약 체결 등을 거쳐 내년 1월께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박영진기자 pyj4079@

여수 '국제 관광·레포츠 수도'로 만든다

市, 중장기 발전 계획 'Oh Yeosu 2020' 보고회

여수시가 오는 2020년까지 세계사람 누구나 와보고 싶은 '국제 해양 관광레저 스포츠 수도' 건설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여수시는 지난 17일 시청 상황실에서 김충석 시장, 부시장, 국소단체장, 읍·면사무소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인 '오! 여수(Oh Yeosu) 2020' 용역에 대한 사전보고회를 열었다. 이 자리는 박람회 이후 도시발전 비전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 달까지 마무리되는 용역결과를 참고해 새로운 여수의 중·장기 발전방향과 미래 비전을 논의했다. 여수 비전 실천계획인 'Oh! Yeosu

2020'의 핵심은 '2020년까지 세계사람 누구나 와보고 싶고, 와서 살고 싶은 국제 해양 관광 레저 스포츠 수도'를 본격 건설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박람회 사후 활용과도 연계, 박람회 정신과 유산을 계승하고 지역발전 선도를 할 수 있는 국제 해양 관광 레저 수도 거점으로 개발하기 위해 국토해양부, 박람회 조직위원회 등 관련 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다. 시는 이달 중으로 시의회 설명회, 시민 공청회, 최종보고회 등을 열고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국제 해양 관광 레저 스포츠 수도 건설'과 함께 여수시 비전의 또 다른

축으로 '세계 4대 미항 가구기'도 본격화될 예정이다. 또한 시는 지난 박람회 기간 중 개최된 환태평양 도시발전협의회(PR-CUD) 여수 라운드테이블 포럼의 제안사항을 반영하고 ▲미항(美港) 공감대 확산 ▲도시 경관 디자인 ▲관광인프라 확충 ▲해양환경 개선 등 4대 분야 37개 핵심과제에 대한 실행력을 확보해 추진한다는 계획을 구체화했다. 한편 'Oh Yeosu 2020' 중·장기 발전 계획은 민선 5기 역점사업인 '국제 해양 관광 레저스포츠 수도 건설'에 초점을 맞춘 시장 방향과 중요 시책 등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지난해 9월 여수시가 전남대 산학협력단과 관련한 검토에 연구용역을 맡겼다. /동부취재본부=임문택기자 mtim@

日 한국학 도서관 순천 청암대 이전 교포 윤희길씨 기증

재일동포 기업가가 일본에서 운영중인 대표적 한국학 도서관이 순천으로 옮겨진다. 순천 청암대는 "일본 효고현(兵庫縣) 아마가사키시(尼崎市)에서 지난 1987년부터 운영되던 도서관 금수문고가 오는 22일 청암대 학술정보센터 6층으로 이전해 개관한다"고 19일 밝혔다. 금수문고는 재일교포 사업가 윤희길씨가 건립, 운영해오던 기증처를 찾던 중 청암대 재일교포 연구소장인 정희선 교수와 인연이 닿아 순천으로 이전하게 됐다. 금수문고는 남북한과 일본 각지에서 수집한 각종 도서와 자료 등 2만3000여권을 소장하고 있다. 청암대는 금수문고 이전 개관식을 기념해 이날 학술대회도 연다. 학술대회는 '재일코리아 디아스포라 100년'을 주제로 한국과 일본 대학 교수 10명이 6개의 연구주제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된다. 정희선 교수는 "지난 3월 연구소 일로 일본을 방문, 윤희길씨와 면담 과정에서 기증처를 찾았다는 말을 듣고 청암대 기증을 추진했다"며 "재일동포 등 한국학 관련분야에 재일동포 연구 등에 획기적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전통 매실 숙성법 배우러 왔습니다" 제주도 농업인들이 최근 광양시 진산면 금이리에 위치한 매실 가공공장을 방문해 관련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이곳은 전통 매실 숙성법을 배우러 왔습니다. (광양시 제공)

"힘 모아 정원박람회 성공개최" 외국인 송금수수료 우대 순천농협 특화서비스

NH농협은행 순천시지부(지부장 황길주)는 외국인 근로자와 결혼이민자가 해외로 송금할 때 외국환 수수료와 환율을 우대해 주는 특화서비스를 제공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외국인 특화서비스는 외국인 근로자와 결혼 이민자들이 타국에서 번 돈을 고향에 있는 부모·형제에게 송금할 때 발생하는 송금 수수료를 최대 45.3% 인하여 주고, 환율을 50%까지 우대 적용해 주는 제도이다. 또 외국인 근로자나 고용주가 대신해 외화송금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매달 은행창구에 나오는 불편 없이 송금할 수 있고, 급여(보수)와 송금 내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황길주 지부장은 "순천시와 관련 기관에 협조를 요청해 많은 외국인 근로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순천시와 순천만 국제 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순천 청암대학교(총장 강명운)는 지난 16일 순천 청암대 소회의실에서 정원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사무국이 사무처로 확대개편됨에 따라 조직위 사무실을 박람회장 근거리로 위치한 청암대 건강복지관 건물로 이전하면서 삼자간 실질적인 필요성과 상호 윈-윈의 분위기에서 성사됐다. 앞서 조직위는 정원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해 지난 2010년 3월 청암대 총학생회와 MOC를 체결한 바 있다.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전 북



보기만 해도 더위 싹~ 부안군 내변산 제1경으로 손꼽히는 직소 폭포가 최근 잦은 비로 수량이 늘어 시원스럽게 흘러내리고 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도 관용차량, 친환경 전기차 도입

전북도가 온실가스 감축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전기자동차를 도입한다. 전북도는 4500만원을 주고 처음으로 전기자동차(기아 레이) 1대를 산데 이어 연말까지 7대를 추가 구입할 계획이다. 전기자동차의 최고속도 140km, 1회 충전 주행거리는 140km이다. 전북도는 대당 5000만원짜리 전기자동차를 사면 정부가 1500만원을 지원함에 따라 일선 시·군도 최소 1대 이상의 전기자동차를 구입토록 권장했다. 또한 관용차량 관리규칙을 개정, 전기자동차를 정수배정 외 구매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444mm 폭우에 공공시설 86개소 57억원 피해 군산 재난지역 지정 '촉각'

24일 조사 마무리

444mm의 폭우가 쏟아진 군산의 수해 피해조사가 24일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전북 재난안전 대책본부에 따르면 군산시는 16일부터 피해 조사에 들어갔으며, 20일 피해 조사를 마칠 예정이다. 최종 피해액은 군산시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소방방재청의 조사가 끝나는 24일 확정된다. 현재까지 접수된 피해액은 공공시설 86개소 57억여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피해액이 75억원(공공시설 기준)을 넘어서야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역주민과 군산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폭우로 파손된 차량의 피해액만 175억여원에 달하지만 특별재난지역 지정은 공공시설을 기준으로 한다"면서 "사유시설 피해가 집중된 군산의 경우 지정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서울 강남구청, 제주 서귀포시, 경북 김천시 등 군산시 자매도시들이 수해를 입은 군산에 연일 온정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 경북 김천시 임덕수 자치행정국장 및 직원들은 지난 15일 군산시를 찾아 1.8ℓ 생수 3000개를 전달한 데 이어 16일에는 대구 동구청 이재만 동구청장 및 직원들이 2.5t 트럭 2대 분량의 생수(350ml 750박스)와 100만 원 상당의 즉석밥과 컵라면 등을 전했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nogusu@

서울 강남구청의 경우 17일 직원 15명, 자원봉사자 50명, 구의원 4명 등 총 70명이 군산을 방문해 자원봉사 활동을 펼치고 8300여만 원 상당의 물품과 함께 방역차량 3대, 엠블런스 2대를 지원했다. 제주도 서귀포시청은 항공택배를 통해 2ℓ 생수 384박스를 보내왔다. 문동신 시장은 "어려운 시기에 여러 가지 도움을 준 자매도시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께 보답할 수 있도록 조속한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지역은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400mm가 넘는 집중 호우가 쏟아지며 2500대의 차량이 침수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nogusu@

전북 영상산업 70억 경제효과 정읍고추 명성 되찾기 품평회

전북지역에서 영화 등 영상촬영에 따른 지역경제 유발 효과가 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시 영상위원회는 "지난해에 전북지역에서 촬영된 영화와 드라마 등의 영상물은 모두 53편이며, 70억원의 경제유발 효과를 얻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19일 밝혔다. 영상물 촬영을 하면서 지역에서 직접 쓴 비용은 60억원이며, 홍보 효과는 248억원으로 집계됐다. 또 고용유발 효과는 206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 영상위원회가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7개 영상위를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이다. 전주시 영상위가 경제유발 효과와 홍보 효과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전주시 고인기 신성장산업본부장은 "전북이 영상물 촬영 적지로 꼽히고 있다"면서 "지역 경제와 지역 영상산업의 발전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영상물 촬영을 유치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정읍시가 경북 안동, 충북 음성과 함께 전국 3대 고추 명산지로서 이름을 떨쳤던 옛 명성 되찾기에 나섰다. 정읍시 농업기술센터는 오는 29일 '정읍고추' 품평회를 열고 660㎡에 높은 이랑 재배, 토양개량, 깊이갈이 재배구로 구분해 소비자와 농가가 선호하는 25개 품종과 재래고추 9개 품종을 실증시험 재배한 고추에 대해 평가한다. 이를 통해 시는 정읍지역에 맞는 품종선택과 토양개선에 따른 효과적인 재배법을 모색해 농가에 새로운 기술을 보급함으로써 정읍고추의 품질 향상을 꾀하고 고추 명산지로서의 정읍의 명성을 되찾을 방침이다. 김생기 시장은 "실증시험 연구를 통해 소비자가 선호하고, 병해충이 강한 품종을 선발해 토양개량 및 재배법을 개선하고 역병과 탄저병 등 주요병해의 효과적 예방법 등 구명해 정읍고추의 명성을 되찾겠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s@

단 신

전북 첫 동물복지 축산농장 2곳 탄생

전북에서도 동물복지 축산농장 2곳이 처음으로 탄생했다. 전북도는 동물이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관리하는 무주와 남원의 닭 농장 2곳이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을 받았다. 인증을 받은 동물복지 농장에

김제경찰, 마실길 9개 코스에 CCTV

김제경찰서(서장 이상주)는 안전하고 편안한 마실길(산책길)을 만들기 위해 구간마다 방범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이다. 김제경찰은 '새만금 바람길', '모악산 마실길', '예향천리 마실길', '금구 명품길', '봉두산 마실길' 등 총 5개 마실길 9개 코스를

남원 '애향 장학숙' 건립 기탁금 줄이어

남원시가 인재양성을 위해 추진 중인 '애향 장학숙' 건립을 위한 기탁금에 잇따라 기탁되고 있다. 남원시에 따르면 최근 ㈜남원 콘크리트와 ㈜명성화학이 애향 운동본부를 방문해 각각 500만원의 건립기탁금을 기탁했다. 남원시 광치동 농공단지 내 PE

순창시 출장 운전면허 학과시험

순창에서도 운전면허 학과시험을 볼 수 있게 됐다.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주상용)은 면허시험장과 원거리에 위치한 농촌지역을 직접 찾아 학과시험을 치를 수 있는 '출장PC 학과시험' 버스를 제작·운영한다. 버스는 자체 PC학과시험용 서버 장비를 탑재해 원거리에 거주하는 도서·벽지지역 주민과 65세 이상 고령자 및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운전면허 학과시험을 실시하게 된다. /전북취재본부=이희동기자 dhlee@